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5년 12월 25일
제4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o the way of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선교사의 기쁨은 실로 커서
마치 정신세계와 작품이
더욱더 완벽함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기쁨이다.
보시니 좋더라 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기쁨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기쁨
수많은 애감을 하는 기쁨
스카웃 단원들처럼
선행을 하는 기쁨도 무궁무진하다.
선교지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자전거의 바퀴와 함께
언제나 행복했다.

(말가리다에게 보낸 편지 중)

- | | |
|--------------------------------|--------------|
| 04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JPIC 선교 |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
| 07 선교 지역 소개 : 이탈리아 | 편집부 |
| 14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 | 이 루미네 수녀 |
| 21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 최 보스코 수녀 |
| 27 언제나 희망을 | 허 명서베드로 수녀 |
| 30 그 수녀들이 살아가는 방식 | 오 클라우디아 수녀 |
| 38 마중 나온 지난 시간 속에 몸을 던지며 | 김 아가다 수녀 |
| 44 하느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가나안 땅 | 윤 모이세 수녀 |
| 48 예수님의 연민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낄 때 | 이 그레이스 수녀 |
| 53 워싱턴 리포트 | 이 나타나엘 수녀 |
| 57 후원 | |
| 58 해외 선교 지역 | |

2015년 제4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차진숙 클레멘스 수녀

발행일 2015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베트남 빈중 한글학교 꽃잎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JPIC 선교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때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때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 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앞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사야 11,5-8)

선교사로 부름 받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소명이고 실제로 새로운 강생의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강생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자연의 실태를 보면 인간이 발전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자연에 대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은 어디서든지 ‘정의, 평화, 환경, 생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오늘날 선교는 인간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자연을 하느님의 생명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서로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되는 선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살 길은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되기를 바라셨습니다(마르코 16,15 참조). 따라서 JPIC는 모든 피조물과 우주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지배가 지구를 파괴해 버릴 수 있으므로 더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환경 회칙 「Laudato Si」(찬미받으소서)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JPIC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환경 회칙 2항에서는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세 2,7 참조).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 회칙은 새로운 정의의 패러다임으로써 온전한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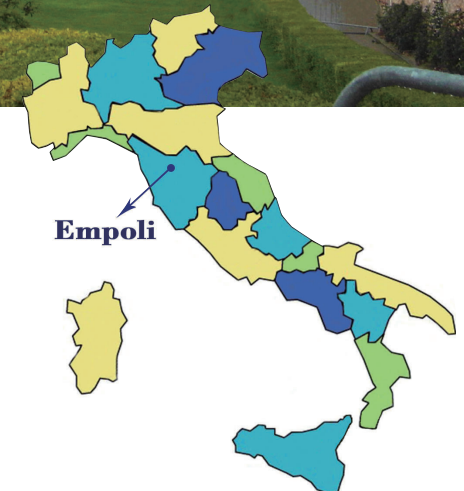
우리는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강생의 예언적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JPIC적 선교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시대의 긴박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회복해야 할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선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느님의 창조물으로써 하느님의 창조가 숨을 쉬는 곳이고, 지구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겪는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구 온난화, 식수 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낮아진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의 붕괴, 세계적 불평등,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제 정치 지도자들의 미약한 반응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환경 회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위해 특별히 여성과 가정, 어린이들, 청소년,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는 사회적 전망은 물론 더욱 시급한 선교적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자유로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교사인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창조계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지평을 하느님의 모든 창조계로 확장시켜 나갈 시대적·예언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역동적으로 구현할 때, 우리는 인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인류와 창조계가 조화를 이루며 공동의 집에서 하느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환경 회칙 66항 참조). JPIC 선교활동은 이런 모든 관계적 삶을 의식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식별하며 행동하는 자세를 통해 연대정신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해외선교에 파견된 모든 수녀들이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영의 현존 안에서 우주적 선교사명을 의식하고 해방과 치유, 함께 살아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인내하는 생명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Italia



공식 명칭 : 이탈리아 공화국
 위치 : 유럽남부, 지중해연안 이탈리아 반도
 수도 : 로마
 인구 : 61,482,297명(2013)
 언어 : 이탈리아어
 종교 : 로마가톨릭(90%)
 정체 · 의회형태 : 공화제, 양원제
 기후 : 지중해성기후



1996년 4월 5일, 차 클레멘스 수녀가 신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박동균 신부와 마주쳤는데 박 신부는 지나가는 클레멘스 수녀를 불러 세웠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박 신부가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엠블리에서 노동사제 렌조 판파니 신부 사제관에서 방학기간에 지낸 적이 있었는데 렌조 신부가 당신의 본당(대장간에서 일하면서 본당과 공소를 돌봄)에 수녀들이 파견되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박 신부는 한국 수도회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날 기도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던 중에 지나가는 클레멘스 수녀를 본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차 클레멘스 수녀는 관심을 보였고, 평소 선교사에 뜻이 있었던 차에 총원장(故 이 레오날드) 수녀에게 의향을 밝히고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견을 모아 이태리 선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



01 성지주일 행렬 전

였다. 예전에 차꼬 분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태리도 가톨릭의 원조 국가이지만 공산주의가 뿌리 깊고, 교회의 열악한 상황들을 볼 수 있었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개발국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늘어가는 교회를 재복음화시켜야 하는 소명에 소비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일 년후 1997년 5월 31일 이태리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윗글은故 이 레오날드 수녀의 인터뷰를

통해 성가소비녀회가 이태리 선교를 파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 엠블리의 아바네

우리 수도회가 머물고 있는 아바네는 이태리 북쪽에 위치한 토스카나(Toscana) 지방(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에 속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토스카나는 이태리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곳으로 수많은 언덕이 펼쳐진 아름다운 지역이며 살기 좋은 곳이기에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중국, 알바니아, 모로코, 북아프리카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스카나의 중심도시는 피렌체(Firenze)이고, 엠플리는 피렌체시에 속하는 자치도시로 우리나라의 '구(區)' 정도에 해당되며 엠플리에서 피렌체는 기차로 25~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바네는 엠플리 자치도시에 속하며 우리나라 '동(洞)' 단위로써 '작은 러시아(Piccola Russia)'라고 부를 정도로 이태리에서 가장 공산당원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바네 사람이 거의 다 공산당원들이었고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성당 신자수는 많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에 성당이 있어 한국처럼 지역 구분이 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교회는 물론 사회의 모든 것을 독점했기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었으나 공산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 시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의 삶이 달라졌고 특히 노동사제들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바네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본당 신부가 피난가고 1950년까지 7년간 사제가 없었기에 공산당원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신자들은 공산당원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렌조 신부가 부임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노동사제라





02

02 성체거동 행렬

는 것이 환영을 받게 되어 공산당원들과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속화의 영향으로 신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산타마리아 성당 주임 신부가 아바네 성당도 함께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세리 꼬르디아는 13세기 중반에 피렌체에서 시작되어 토스카나 지방에 확산된 자선단체로 7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 25,35-40절의 말씀에 의해 자선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엠펠리의 미세리 꼬르디아는 1635년에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이태리 선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봉사를 통해서 선교가 육화의 시작이듯이 이들의 요구에 육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육화의 과정은 예수님의 삶에서 보듯이 많은 희생과 자기포기와 가난을 동반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그것도 인간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상황에 내려 오셔야 했던 엄청난 변화, 가난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03

03 주일 병원 미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봉사만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으로까지 이끄는 것이 수도자가 하는 사회봉사이고, 복음적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목에 바로 성가소비녀회의 카리스마가 접목되어 육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섭리에 의해 발을 내딛은 이태리 선교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현재 허 명서 베드로 수녀, 이 루미네 수녀, 최 보스코 수녀가 아바네 성당 일과 재가 방문, 미세리 꼬르디아 봉사를 통하여 제1세계에 대한 선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힘과 방향을 발견하며 아바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초대해 주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쥬세페 추기경 방문



01

01 아바네 가는 길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

이태리 엠블리
이 루미네 수녀

자선단체 미세리 꼬르디아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일명 멘사)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저의 일터입니다.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서 성호를 긋고 묵주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요. 아침의 신선한 기운에 성령께 은총을 청하며 운전하는 모든 이들과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적 준비운동이기도 합니다.

5분도 채 안되어 사람들이, 차들이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생필품가게 앞에서 만나는 비아 델 쏫조 할머니들, 학교 앞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들은 주일에 형이나 누나들과 함께 성당에 오지요)과 엄마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의식입니다.

스쿨버스 기사님도 미소로 인사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 전임 수녀들의 친분 관계가 이어지면서 우리와도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 이르면 한 무리의 파란색, 노란색이 섞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요일마다 춤을 추러 오는 텔피노 아쭈로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매일 봉사를 하며 기금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가득한 아침 인사는 더욱 활기 있고 신선합니다. 특히 이태리인, 무슬림, 흑인

등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종교와 국적과 피부색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그들은 무료급식소에 장을 보러 옵니다.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지요. 월요일엔 남성복, 수요일은 여성 의류를 그리고 신발, 의복, 어린이 물품을 받으러 오다 보니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3 번은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다가 병원 앞에 이르면 길 건너편의 한 사람, 짙시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녀는 온종일 주차장 표 파는 기계 앞에 박스를 깔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요. 손을 흔들며 인사하면 그녀도 내게 인사하며 “돌아오는 길에 뭘 좀 갖다 줘...”하고 큰소리를 치지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멘사에서 빵을 얻어다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시내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쉬어야 하는데, 길을 건너기도 해야 하지만 자전거로 10분정도 신나게 달렸으니 숨이 좀 가쁘기도 하지요. 시내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작은 니키아(성모님을 모시는 곳)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아름다운 문화 중 하나로써 성모상과 함께 촛불, 꽃을 봉헌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부서지거나 변색되어 먼지가 가득 쌓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봉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4년 동안 계속해서 이곳을 지나치게 되는데 항상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생화가, 어느 날은 기도문이, 어느 날은 조화가 한 다발 놓여 있습니다. 촛불이 2개나 켜져 있을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이 니키아를 깨끗이 청소하고, 매일 아침 촛불을 켜 놓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궁금해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다시 들르기도 했지요. 아침에 거의 꺼져가던 촛불이 오후가 되면 새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니키아는 저에게도 신성한 멈춤의 자리이며 성모님께 전구를 더 깊이 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니키아를 지나자마자 저의 시선은 바로 누군가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알콜리즘 아저씨! 그의 사연은 참 슬프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60살 전후로 치아가 없고 무척 말라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집에 불을 질러 집이 타버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누나의 보호아래 살고 있는데 그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좁은 지역이라 그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돈을 청해도 그냥 웃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끔은 콜레지아타 성당에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며 미사 후에 사람들에게 돈을 청하고, 겁을 주면서 사람들을 쫓아 다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냥 웃으면서 쳐다볼 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저씨가 술병을 차고 앉아 계시기에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했더니 큰 소리로 웃으십니다. 다음날도... 어느날 지나가던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



02 델피노 아푸로 회원
03 맨사 입구



요.”라고 되풀이 했습니다. 내게 악수를 청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제 손에 20 첼테지미(약 200원정도)를 쥐어 주었습니다. 저에게 불인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No”라고 말하고 대신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라고 대답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잠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는지 들고 있던 맥주를 자전거 바구니에 부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태연하게 “당신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또 만나요.”라고 말할 후 자전

거에 올라타려고 했더니 미안해하며 술에 옷이 젖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하루가 되기를”하는 인사말을 남기고 멘사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갑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던 젊은이는 그 아저씨가 행여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켜보고 있다가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빅토리아 광장 앞 마돈나 델 뿔조 성당을 지나



04 엠블리 시내

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짚시들과의 인사는 저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2, 3년 전 아침에 미사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3명의 짚시가 있었는데 아저씨 혼자 앉아 있었고, 여자들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후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 주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성당 밖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짚시가 내게 돈을 청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아마도 지금 내가 당신보다 더 가난할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척 불쌍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 못마땅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하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저의 삶을 이해 못하는 그녀의 대답이 저를 더 행복하게 했습니다.

경찰서 앞을 지나, 몇 개의 길을 더 건너 멘사

에 이르러 자전거를 묶고 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그 시선을 따라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점심표를 받은 후 옷이나 샤워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한쪽에 모여서 차를 기다리는 젊은 엄마들(흑인, 무슬림, 알바니아인 등등)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가난이 마음의 가난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젊은 엄마들은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항상 아이들과 함께 멘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서로 자신이 먼저 왔다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상도 하지?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울까? 차를 기다리면 좋을 텐데?”

11시 30분이 지나면 점심을 주기 때문에 그전에 물건을 받아 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건을 받으러 들어 가면 이것저것 고르느라 시간이 오래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옷을 골라야 하므로 아이들을 챙길 수 없기에 아이는 울고, 걸을 수 있는 아이는 호기심에 이곳저곳 멘사 내부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봉사자들이 건네주는 과자나 장난감을 얻기도 합니다.

점심은 여성 봉사자들이 평균 30인분을 준비합니다. 토요일은 40인분까지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시락 배달 2개 혹은 3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태리의 젊은이들과 연금자 중에 저연금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 한 젊은 여성은 피렌체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을 위해서 도시락을 청해 가져가고, 일부는 마돈나 델 리포조 성당에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태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 물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세리 포르티아와 꼬무네(공공기관), 코푸(대형 마트)와 연계하여 코푸에서 팔고 남은 물건을 멘사에 보내왔는데 지금은 이마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코푸도 경기가 어려워 유통기간이 임박한 물건을 아침과 저녁시간에 특별 할인 코너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반값에 팔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물건이 남아 쓰레기로 내버려지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은 세콘도(식사코스의 일종으로 두 번째 나오는 음식)를 위해 돈을 주고 멘사에 물건을 사와야 함으로 도시락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올 3월초부터 소비리아나 본부와 4인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것마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라 스페사(생필품 보급)를 항상 멘사에서 하였기에 사람들이 장을 보고 기다렸다 점심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물품은 꼬무네에서 허락하는 허가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꼬무네의 지원이 없고, 코푸에서도 물건이 안 들어와 멘사 창고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봉사자들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지원은 줄어들고, 물건이 적으니 식사준비 봉사자와 생필품 보급 봉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물건이 조금씩 없어지는 일도 생기고, 불신도 너무 심해져 올 초부터는 멘사와 라 스페사를 분리했습니다. 코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물품을 먼저 조달하고 그 곳에서 멘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방 봉사자와 멘사 책임자가 의논해서 보내옵니다.

미세리 포르티아에서도 원조를 위해 여기 저기 고문들을 보내어 협조를 청하던 중에 병원에서 환자 식사를 위한 음식 중에 빵, 과일(거의 아주 조금), 우유 등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부터 30명의 난민들을 위한 식사와 물건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처음 한 달은 멘사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보내다가 나중에는 그들

이 할 수 있는 음식 재료를 보내주고, 코푸에 서 구입한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팀은 남자만 28명(투니지 아 난민) 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적이 서로 다른 난민들로서 어린이들과 여인들 또는 한 가족 전체 등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리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오는데 코푸네에서 숙소를 준비하고 체류를 위한 것들은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렌체는 미세리 꼬르디아와 많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배를 타고 전쟁과 가난을 피해서 생사를 걸고 바다 건너서 온 난민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난민으로서의 대우 기간이 끝나면 외관상 이주민화 되어 가는데 일자리가 없고, 거처할 곳도 없어지고, 도움은 줄어들고 결국은 길거리로, 행려자로, 알콜리즘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멘사의 또 다른 변화는 봉사자들입니다. 멘사 초창기부터 미세리 꼬르디아의 회원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봉사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초창기 멤버들 중 몇 사람만 남아서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4~5명(요일에 따라 다르다)은 코푸네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개인 별로 시간이 모두 다르며 이들과 일을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한다는 표현보다는 미세리 꼬르디아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엘리사의 경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피렌체에 일하러 가는 상황이라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므로 아침 8시 30분에 와서 12시 30분까지 멘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봉사자들의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며, 지금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시 30분 경이면 모든 식사와 설거지, 다음날을 위한 재료 준비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늘 되풀이되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데레사, 엠마, 이다 등...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건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이 다들 게 없는 반복의 시간들이지만 이 모든 시간 안에 행해진 일들이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졌고 하느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립자 성 신부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신부님이 선교사로서 겪었을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모든 이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삶은 제2의 부르심이라고.” 이 고백은 그 젊은 젊이가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 라는 질문 이후에 더 확실해졌습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태리 엠벨리
최 보스꼬 수녀

한국에서는 이태리하면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과 관광지를 연상하기에 이곳에 소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러워하는 시선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선들에 대한 당연함과 함께 처음 이태리 선교 소임을 받았을 때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태리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가톨릭의 영향 안에서 형성된 나라이기에 선교지로서 합당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년 남짓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했던 나라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잃었고, 잃어가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고 다시금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점점 파괴되어가는 교회를 세신하고 재건해야 하는 절박한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피렌체 교구 소속의 작은 도시인 엠펠리에서도 더 외곽인 아바네 마을의 아바네 성당 근처에 있습니다. 수녀원과 성당은 많이 낡아서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여러 군데 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신자들이 활발하게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당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침대를 옮기거나 물받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성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미제리 코르디아에서 무료급식소 일과 재가방문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곳 엠펠리에도 사제의 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사제들(폴란드, 콩고, 나이지리아, 인도, 브라질, 필리핀 등)이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네 성당은 따로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고 산타마리아 성당 신부님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신자수가 엠펠리 지역에서 2위 정도 되는 큰 성당이기에 신부님은 주로 산타마리아 성당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수녀원도 거의 다 노령화 되어서 젊은 수녀들이 없는 상황이고 나이 많은 수녀 책임 하에 일반인들을 고용하여 학교와 유치원을 겨우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엠펠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녀는 폴란드 수녀 2명과 요셉수녀회의 이태리 수녀 1명, 그리고 저희를 3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 역시 노령화되어 미사 때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 첫영성체, 견진, 결혼, 장례를 위해서 성당에 오는데 요즘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부모도 많고 결혼과 장례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아주 열심히 신자들 외에는 사제와 수녀에 대해 비판적이며, 외국인 사제들이 주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 선교보다는 돈을 벌러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태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



01 5학년 교리반 2

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이곳에서의 선교는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바네 성당 지기

성당 미사와 전례 행사 준비, 미사 반주, 매월 병자 영성체 그리고 주일에는 보조교리교사로 각 교리 반에 들어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12명의 어린이가 첫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첫영성체를 받는 어린이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서 봉헌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받는 상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영성체 대상 중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가정의 이태리 성당 신자인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 첫영성체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성당과 저희가 조금씩 보조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들어온 빵을 함께 나누려고 방문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밖에도 거의 못나가고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구는 모두 5명인데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아버지가 아이스크



02 첫영성체, 견진

림 공장에서 3개월 일해 벌은 돈으로 일 년을 살아야하는 형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세 아이들은 속옷만 입은 채 좁은 방에서 놀고 있고, 엄마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경우 아무 일이라도 하려고 찾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물질적으로 크게 도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가끔 먹을 것이 들어오면 챙겨서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이 카라멜 하나를 먹기 위해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난으로 “나한테 줄래?” 하고 말하자 아이는 주고 싶어도 선뜻 내게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 빈곤함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가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모두 미사에 잘 참여하고 성격이 온유한 편입니다.

교리반 아이들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서 성당에 오거나 거리에서 만나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가정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지내다가 쉽게 헤어지고, 다시 새로 만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이를 원치않거나 싫어하여 부인과 아이를 버리고 또 다른 가정을 찾아 떠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도 안정적인 가정보다는 일시적인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에

게 세례, 첫영성체, 견진을 주기위해 성당을 찾아오곤 합니다.

일반 신자들도 첫영성체와 견진 시기에만 아이들을 성당에 보내고 그 외 어른들은 드물게 미사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잊혀진 신앙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미사에 나오고, 성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선교의 고민이며 이를 위한 점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병자 영성체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저희 3명의 수녀가 각각 7명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청하면 성당 소임자인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자는 어르신들로서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그분들의 사는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이지만 수많은 말들 속에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자 분들도 주로 일상적인 모습과 신앙체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아침 8시, 11시 미사가 있는데 11시 미사에 종신부제를 준비하는 주세페가 지휘를 하고 저는 오르간 반주, 루미네 수녀는 기타 반주를 맡고 있습니다. 명서베드로 수녀와 5~10명의 교우들이 성가와 함께 전례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레슨(매주 목요일 PM 4:30~PM 5:30)

신자 중에 3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지붕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이고 자매님은 가정주부라서 살림이 그리 넉넉지 못한 편입니다. 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비추어 볼 때 음악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악보를 보지 못하고, 어쩔 악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막상 음악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레슨비가 비싼 편이라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침 이 가정의 한 아이가 오르간을 배우고 싶어 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공동체와 함께 상의한 후 레슨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전혀 기초가 없어서 이론도 함께 병행하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교회 음악을 선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곡과 성가 등을 레슨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미사 때는 함께 ‘알렐루야’와 ‘거룩하시도다’를 반주하기도 합니다.

산타마리아 성당 미사 반주와 노래(매주 토요일 PM 6:30 미사)

신부님의 요청으로 토요일 특전미사 때 반주를 하고 있으며 수녀님들은 성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타마리아 성당 신자들에게 저희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미사성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집 주위의 황무지 땅을 개간하여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흙이 딱딱하고 돌이 많이 있어 밭으로 이용하기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잘 것 없이 버려진 땅이 텃밭으로 바뀌어 채소를 심고, 정성껏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했던 물을 퍼 나르며 가꾸었더니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고에 비해 수확량은 적으나 이 작업을 통해 이런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해외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주님께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엠블리에서 선교 수녀로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식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소비녀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언제나 희망을

이태리 엠블리
허 명세베드로 수녀



01

01 이다 할머니와 바단테

얼마 전에 미세리코르디아에 93세의 할아버지가 새로이 방문하셨는데 올해 1월에 100세가 된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맑지 않고 8년 전부터 침대에만 누워계시지요.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신편이에요. 다만 했던 말씀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니까 상주 도우미 자매(이런 사람들을 ‘badante 바단테’라 부릅니다)가 대답도 않고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태도에 심기가 불편한지 방문할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혼을 안했고, 할머니의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할머니 댁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남매가 함께 노후를 지내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때론 결혼하지 않은 남매가 함께 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단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상주하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직업이지요. 대부분 이웃 나라인 루마니아와 조르지아 출신이 많으며 그 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들은 상주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어쩔 수 없이 외국사람으로 대신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루마니아와 조르지아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점점 두 나라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친정어머니를 위한 바단테를 부탁하면서



02 이다 할머니 95세 생신

두 나라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언젠가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평도 들었고, 방문을 다니던 중에 바단테가 있는 집을 가게 되었는데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어르신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았기에 저 역시 두 나라의 바단테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묻는 말씀에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하더라도 거의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

면서 언짢은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이가 들면 반복해서 말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참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선불리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 할머니에게 더 심하게 대할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계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이곳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단테를 필요로 하지만 여러 이유로 특히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상주하는 바단테는 적어도 800유로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받고 있는 연금으로는 많이 모자라서 방문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무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써보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평생 힘들게 일해서 겨우 장만한 집이 고작인데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집이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고인의 연금에서 50%를 지급하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30%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엠펠리 꼬무네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작년에 새로 시장으로 선출 된 30대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실적 위주의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상

황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실업자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 만나면 뛰어오르는 물가와 살아갈 걱정이 태산만하지요. 재가 방문을 하다보면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방문을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닌 ‘수녀’라는 존재에 신뢰를 하고 한마디에 경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대상에는 구분이 없으며 우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이젠 여름 휴가철로 성당이 텅 비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 주일 대미사에는 신자 14명, 수녀 2명 모두 16명이 미사 참례를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성령의 바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언제나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 수녀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오 클라우디아 수녀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소임을 마치고 차코 아비아 페라이 분원으로 부임해 온지 어느덧 일 년을 훌쩍 넘겼다. 2014년 계속수련을 마치고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걱정이 되면서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세상과 선교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도전에 초대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차코 아비아 페라이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에서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가난이라는 테두리 속에 방치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특히 가장 난감한 문제는 열 네다섯 살의 여자아이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거기서 종결된다는 점이었다. 국가로부터의 무상 계공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공부방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단지 아이들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창조적이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험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에노스 수녀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비자촌(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마치 범죄 소굴과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이하 '마전프') 이 세실리아 수녀였다. 참고로 이 수녀는 19세에 이민 와서 22세에 아르헨티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관구에 입회한 한국인이다.



감동적인 환대

세실리아 수녀에게 방문 취지와 일주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안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녀님 좋은 생각이예요. 언제든지 오세요.” 하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순간 어리둥절하였다. 지금까지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수도회 수녀가 숙식을 부탁한 것이고,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말이다.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했지만 이렇게 환영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벌써부터 감동 받고 흥분 되어 무조건 이 수녀와 공동체에 매료되었다.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선교사라면 그녀가 걸어온 삶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 내가 너무 오버한 것일까? 그 공동체가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비자촌 공동체

드디어 비자촌으로 오게 되었다. 이곳은 통칭 ‘무서운’ 지역이다. 택시기사들도 비자촌 경계 지역에 들어서기를 꺼리는 곳이다. 실제로 내 비게이션도 비자촌 주변만 들어서면 “이곳은 위험지역입니다”를 연발하며 경고음을 낸다. 경찰들도 비자촌엔 얼씬조차하지 않는다. 잘못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 이런 우범지대에 우리의 용감한 수녀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비자촌은 거의 구별도 힘든 비슷비슷한 판자촌으로 뻘뻘하게 들어서 있기에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주민이 아니면 힘들다. 언제 무

슨 일이 벌어질지 늘 긴장되는 곳이다. 이런 ‘무서운’ 동네를 걸으면서 수녀원에 다다랐다. 여기에는 세 명의 수녀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국적이 달랐다. 연장자로 머리가 하얀 아르헨티노 수녀(67세), 한국인 세실리아 수녀(57), 폴란드 수녀(54)들이 다다다닥 붙은 방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녀원의 구조는 현관을 지나 방들을 가로질러 가는 모양새였다. 현관이라 하기엔 어스픈 문을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고 가로질러 성체 방이 나오고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침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침방을 폴란드 수녀와 내가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방의 문고리에는 타올이 감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았다. 이렇게 사적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수녀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처음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수녀들은 모두 사복이었기 때문에 더 자유로움을 느껴서인지 낮선 이와 한 방에 있다는 것이 그리 긴장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밤 10시쯤 돼서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취침 속에 단잠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모두 성체 방에 모였다. 아침기도를 하였다. 세실리아 수녀의 기타 반주로 찬양 곡을 부르고, 당일 복음을 읽고 잠시 묵상한 후 나눔을 하였다. 나눔이 끝나자 각자 자유기도로 아침기도를 마쳤다. 너무도 단순하고 깊이 있는 아침기도였다. 성무일도의 고정된 기도 틀에서 벗어나 자기들에게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체험이었다.

비자촌 공부방

기도를 마치고 수녀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방문했다. 오전반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40여 명쯤 되는 듯했다. 오후반까지 합치면 거의 9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한다. 하나의 넓은 공간에 학년별로 탁자가 놓여 있었고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이채로웠다. 우선 자기 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게임이나 놀이로 함께 소통을 하다가 수업으로 들어간다. 수업은 한 40분 정도 하는 것 같았다. 특히 이곳엔 아이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업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포인트이다. 아이들은 몹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심히 내뱉는 부정적인 단어 하나에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 방침이라고 한다.

공부방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가난한 지역이지만 무료봉사자라는 개념이 없고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으면서 공부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초등학교 심리교사가 와서 문제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관한 교육을 받는 날인데 마침 내가 참석했던 수요일은 마전프 관구장이 한 달에 걸쳐 해왔던 아동교육의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다.

살레시오 신부들까지 와서 거의 40여명이 되

는 인원이 강의를 들었다. 관구장은 매우 부드러운 표정과 확고한 음성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단지 아이들뿐 아니라 가정에서, 수도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폭 넓은 강의 내용이었다. 교육생들이 어찌나 몰입하여서 듣는지 그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가난한 현장을 뛰어 다니는 관구장의 열정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열정적인 관구장과의 만남

이 관구장의 또 다른 호칭은 ‘인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이다. 현재 부에노스 근교에서 매 맞고 힘없는 여성들을 교육시키는데 지금까지 교육받은 여성만 3백 명에 이르고, 이 속에서 지도자들도 배출해낸다고 한다. 이렇게 양성된 여성들은 또 다른 여성들을 양성하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인 셈이다. 이처럼 여성 지도자들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놀라웠다.

수녀들의 지론은, 통념적으로 볼 때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가 된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관구장 수녀가 스물아홉 살에 비자촌으로 들어와 파출부로 일하면서 현재의 공동체를 설립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마전프 비자촌 공동체 첫 설립자인 것이다.

세실리아 수녀가 ‘78년도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만 해도 마전프는 우리 수도회처럼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 매우 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녀들은 주로 기관의 관리자로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수도회 쇠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든 것을 뒤바꾸었다





고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인 것은 양성의 변화였다. 수련소에서의 양성은 가난하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뗫속 깊이 각인시키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수련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았고 매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양성을 통하여 모두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가난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수도회 설립자 신부의 유언 중에 '가난함과 가난한자, 미소한 자를 사랑하시오'가 바로 이런 삶의 형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수도회의 쇄신 과정을 들려주던 수녀의 "수녀원에 입회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오는데, 잘 갖추어진 건물과 가장 안전한 보호 속에서 초기 양성의 한 시절을 보내고 나면 대부분 '공주'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여운을 주었다. 어떻게 반론이 나오겠는가? 아무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곱씹을수록 부끄럼이 물려왔다. 나도 실제로 '공주'였던 것이다.

세실리아 수녀의 용기

마전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관구장 숙소가 관구 본원에 있지 않고 해당 소임지에서 일을 하면서 관구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수도회에 이런 실제 모범을 보인 것이 세실리아 수녀였다. 아시아 수녀로서 처음 관구장직에 선출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소임지에서 관구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회원들에게 청했다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더니! 이런 용기가 놀라웠다.

당연히 수도회 공동체 내에서 술렁거렸고 비판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저 수녀가 우리보다 비자촌 사람들을 더 우선시 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 공동체는 세실리아 수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수녀는 비자촌에서 4년간의 관구장직을 무탈하게 수행했다. 이후부터 선출된 관구장과 평의원들 모두 각자의 소임지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식의 발상을 낸 세실리아 수녀도 놀랍지만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공동체도 놀랍긴 매 한가지였다.

이렇듯 조금만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달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수도생활이 하나의 양식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또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복음을 놓고 얼마든지 진리에 맞추는

삶의 양식이나 제도, 시스템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시스템을 놓고서 복음적 진리를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세실리아 수녀는 비자촌에서 생활한지 벌써 16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비자촌의 자활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녀마주이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이룩했고, 재활용 기계를 들여와 이곳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며 재생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이전에는 녀마로 생계를 이어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재활용한 물건들을 납품하면서 좀 더 자신들의 삶에 의욕을 갖고 자활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다. 마을에서 조합장 회의가 있으면 수녀도 비자촌 협동조합의 공동대표로 참석하는데 단독 협동조합인 만큼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정부와 연대하고 있는 조합장들과 끝까지 맞서면서 비자촌 사람들의 대변자로 참석하고 있다. 수녀의 말대로 가난한 이들 속에서 살려면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공동체를 이루는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얼마를 더 살아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긴 호흡, 인내, 한 단계씩 잘 밟아가기'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여 힘을 내자"

공동체를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기도 나눔에서 폴란드 수녀는 첫 날 이 집에 들어서던 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내가 챙겨 온 짐 보따리와 더 놀란 것은 자신들의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선교지에 왔다는 것에 대단히 감격한 눈치이다. 최고 연장 수녀와 비슷하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나는 좀 멋쩍었지만 눈물까지 비치는 폴란드 수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 역시 여기 공동체로부터 받은 감동을 나누면서 헤어질 때는 서로 부둥켜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4박 5일간의 짧은 여정이 끝났지만 내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진한 여운을 남긴 체험이었다.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라는 한 수도회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수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울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들이 어떻게 오랜 관습과 체제를 물리치고 용감하게 수도생활을 혁신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는지를 목격했다. 우리도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환경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지구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이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류의 미래가 희망으로 이어지기 위해 JPIC 정신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씩씩한 발걸음과 함께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다.

마중 나온 지난 시간 속에 몸을 던지며……

중국 김 아가다 수녀



작년 6월 말 귀국하여 뜻하지 않은 수술로 긴 시간 한국에서 지내며 많은 기도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쪽 시력을 잃음에서 오는 불편함과 아직도 머리는 감각이 없어 잘라놓은 나무토막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주신 생명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싶어 서둘러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수술을 위해 자른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 가발을 써야했는데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지만 원래 작은 눈이 수술 후 힘없이 내려앉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약함을 감추려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세 시간 남짓 걸리는 비행이라서 늘 기내에선 눈을 감고 있거나 잠을 청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시력을 잃은 고통이 있었기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과 수녀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특히 제가 떠나기 전날 온통 주위를 하얗게 덮으며 내리는 눈이 추위에 얼어붙으면 길 떠나는데 불편할까 걱정하며 밤 12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끌어주는 수녀님들의 사랑이 가슴 가득히 메우며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왜 이다지도 크신지!

제가 도착한 곳은 호북성의 형주입니다. 전에 이곳에서 소임 할 때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문 앞에 모여서서 뭉뚱손을 흔들어 주던 그들이 형주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다시금 마중 나온 지난 시간 속에 몸을 던지며 형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더니 심장병을 앓던 나환우가 밤 사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의 아침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층 창밖에서 “리구위원이 죽었다”는 대장 부인의 소리에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몸이 이미 굳어져 몹시 무거웠습니다. 주머니에는 성탄선물로 준 200원이 꾸깃꾸깃 접혀진채 들어있었고, 주인 잃은 강아지는 짹짹거리며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부끄러워 늘 모자를 얼굴 반까지 눌러쓰고 다니던 리구위원,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그의 친구가 하늘이 보이는 누추한 집이지만 우리를 초대하여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그날따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더니만……. 그나마 그와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수녀 셋이서 시신을 들어 반듯하게 눕히는데 인생살이 힘들어하던 그의 무게가 그대로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형주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약 20 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산서성의 분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던 1월은 한국과 비슷한 영하 13~16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였고 햇빛은 늘 매콤한 연기에 휩싸여 마치 결핵 환우같이

창백하였습니다.

방안 온도는 13도를 넘지 않게 과학적으로(?) 난방을 주고,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12시부터 5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난방을 주지 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땀땀하게 껴입고, 난방을 주지 않는 낮 시간에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의 빠른 걸음으로 돌며 계속해서 목주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난방이 안 되는 새벽녘 일찍 눈이 떠져 이불속에서 꾸물거리지만 감기란 놈은 모하게도 약한 곳을 뚫고 들어와 품위를 잃고 코를 훌쩍이게 합니다.

선교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중국 어디를 가도 아직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밤새 콩 볶듯 터지는 폭죽소리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는 설날 전날은 이불 속에 누워만 있을 뿐이지 밤을 꼬박 새우게 됩니다. 마치 대포를 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응집된 화약 덩어리에 불이 붙으면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길게 불을 뿜어내고, 귀가 터질 것 같은 폭죽소리에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며 밤을 보냅니다. 또한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는 이 세상이 아닌 꿈의 세계로 초대하며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금을 뒤집어 쓴 듯한 드레스에 질은 화장 그리고 텔레비전 안의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밤을 새우고 세상사에서 지친 맘을 위로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또한 그들만의 문화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응집력을 보게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면 으레히 볼 수 있는 풍경을 여기에서도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선교를 하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런지요?

민족의 대이동?!

가족과의 친교를 위해 2000킬로가 넘는 거리를(3~4개의 성을 넘어) 밤낮없이 오토바이로 달리면 사나흘이 지나야 고향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의 기러기 떼같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달리는 모습이 놀라울 뿐이며, 집집마다 빨간 대련을 대문 양옆에 붙이고, 길거리는 터져버린 폭죽이 토해 놓은 피처럼 흥건하여 마치 구약의 모세가 파라오와 대결할 때를 연상케 합니다.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내가 거르고 지나가리라.'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너무나 다르기에 이곳 사람들은 구정에 혼자 있는 저에게 “메이요이스(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라며 지나가던 윗집 교우가 문을 두드렸고, 이창의 후 원장도 혼자 있는 제가 마음이 아프다며 전화로 “메이요이스”랍니다.



고독에 익숙한 삶이라지만 다른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동그란 ‘문의 눈’에 제 눈을 바짝 들이대고 동그랗게 수축되어 보이는 바깥세상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발자국소리가 날 때면 행여 우리 집 앞에서 멈추지 않을까?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이렇듯 제 내면 안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단쳐진 문은 이웃과 단절된 것 같이 보여도 기도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연민으로 끌어안습니다. 형주 나환우들의 상황이 더욱 새롭게 저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떠날 때 찬 콘크리트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지 말라며 닫힌 철창문 사이로 손을 내밀고 눈물에 젖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던 이창 장애우들의 울음이 가슴에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신비체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픈 주님과 마주 앉습니다. 장애우들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점심시간이면 전에



하던 습관대로 빈 저희 숙소를 향해 “씨우니 씨아라이 츠판(수녀님 내려와서 식사하세요)”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원장의 전화를 받으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내린 은빛 눈으로 길이 미끄럽습니다. 대중교통이 자주 있지 않아 매일 40 여분을 걸어가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성당에 도착하여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 때 열심히 신부의 강론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지만 성당 안이 냉장고 속 그 자체이니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난방이 안 된 곳에서 추운 몸을 웅크리고 앉아 강론을 들을 때면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주일미사에 보통 1시간 가까이 강론을 하는데 그래야 열심히 신자가 되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평화의 인사 때 숏덩이 같이 거뭇거뭇한 신자들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를 보며 그들에게서 연민을 느낍니다. 왜 세상은 불평등할까? 세상은 부유한데 교회는 왜 이리도 가난한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대국이라지만 빛 뒤의 비추인 모습은 짙은 어둠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늘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가난이 마치도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인양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 리우촌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말로는 배차 간격이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마리아숨파 수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얼어서 마비가 된 손을 따뜻한 물로 녹인 후에 다시 수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영하의 날씨에 오토바이 뒤에 타다보면 눈이 얼어서 눈동자가 빠질 듯한 통증이 생기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며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올때는 걸어가게 되는데 빠른 걸음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그나마 동네 개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가방 끈을 내려 언제라도 막을 방어자세로 대비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마리아숨파 수녀에게 전화하여 “걸어오는데 개들이 너무 많이 달려든다.”고 하니 “수녀님같이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더라고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세 번 이웃을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교구에 가서 학생들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황토고원인 이곳의 집 구조는 산을 파서 집을 만들고 앞에 문을 달아놓은 야오둥이지요.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굴 양 옆을 넓히고 연결하여 집을 짓는데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대문 밖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담을 허리만큼 쌓아 놓은 곳이라 볼일을 본 후 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야오둥인데 산을 파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구조입니다. 한겨울 재래식 화장실에 긴 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시리다 못해 가렵고, 콧잔등에 침을 발라가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후배들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빨리 집을 지어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될 터인데 천성이 만만디(천천히)인 사람들과 일을 진행하려니 성격이 급한 저로서는 다시금 수련을 받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기도로 힘을 주시는 수녀님들의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며 그 기도에 힘입어 하느님의 사랑이 좋은 결실을 맺길 빌어봅니다.

(현재 김 아가다 수녀는 새로 지은 분양수녀원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가나안 땅

아르헨티나 에바 뻬론 병원
윤 모이세 수녀

1년 전 알바레스 병원에서 소임하고 있을 때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님으로부터 에바 뻬론 병원을 답사해 보라는 연락이 왔다. 산마르틴 교구의 문한림 유배날 보좌주교님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 주교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수녀님들과 병원을 방문하였다. 도착해서 본 첫 느낌은 참담했다. 거의 폐허에 가까운 건물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6년 전 알바레스에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이 병원이라 할 수 있으며,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비하면 알바레스 병원은 그나마 훌륭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마르틴은 라플라타 주 소속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바레스 병원에서 승용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도시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쓰레기가 집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500여대의 차가 드나들며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600m가 넘는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겼으며, 주변에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살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난과 안정되지 못한 생활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규모 유료 병원들과 1개의 시립병원, 2개의 주립병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착한 에바 뻬론 병원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에바 뻬론 병원은 61년 전 에바 뻬론에 의해 설립되었다. 40년 동안 대통령의 주치의 사들이 머물며 진료를 보았던 병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권의 교체로 주정부의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20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병원 건립 당시 설립자의 제안으로 성당을 병원 중앙에 설계하고 그 주변에 다른 모든 건물들이 건설되었는데 성당 안에 수녀원이 있어야하고 꼭 수녀들이 상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곳에 파견된 수도회가 도미니꼬회이다.

초창기에는 10명이 넘는 도미니꼬회 수녀들이 생활했는데 병원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4명의 수녀들만 남게 되었다. 3명은 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중에서 데레시마 수녀님(현재 81세)만이 올해로 53년째 여기에서 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방문으로 데레시마 수녀님뿐 만 아니라 우리도 하느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끄셨을 때처럼 모두를 인도하셨다.



경당



새로운 수도회가 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53년의 세월에 스스로의 수도적 삶을 묶어 놓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수녀님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파라오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토록 고집부리며 인간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결국 수녀님은 도미니코 회 수도원으로 떠나게 되었고 수녀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직원들의 오해를 받으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던 직원들과 처음 보는 동양 수녀들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을 하느님께서는 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주셨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병원 원목 소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지역 자체가 가난하고 우범지역이라 총상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마약으로

완전 폐인이 된 청년들, 경찰들을 동반하고 입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안에 역시 하느님의 선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느낀다. 가난이란 환경과 상황이 이들을 돌처럼 굳은 마음을 지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 마주할 때 비취진 눈빛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무언가의 진리와 선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소임을 하면서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수도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가장 절박한 곳에서 부르는 이들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이다. 산마르틴은 변두리며 그야말로 변방인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이곳, 마구 내버려진 이곳에 혹시나 하느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도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않은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신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 공동체는 매일 저녁 1시간씩 성체현시를 한다.

하늘과 땅을 다시 이으시려는 주님의 간절함을,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열렬함을,
죽음에서 생명을 돌게 하시는 주님의 생생함을,
작은이들과 먹고 즐기신 주님의 소탈함을,
힘 많은 이들과 어울리신 주님의 관대함을,
아픈 이들을 어루만지신 주님의 부드러움을,
쫓겨난 이들을 품으신 주님의 파스함을,
짓눌린 이들을 일으키신 주님의 강건함을,
하느님을 왜곡하는 이들을 내리치신 주님의 매서움을,
불의한 이들을 일깨우신 주님의 엄함을,
재물과 권력에 얽매인 이들을 풀어주신 주님의 자유로움을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간청한다.

그리고 이 은총의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손길에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 앞으로의 여정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신뢰와 내 온 존재를 주님의 종으로 내어 드리려한다.



마을 위생교육 후

예수님의 연민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낄 때

캄보디아 바탐방
이 그레이스 수녀

쫄립쭈어? 안녕하세요?
쫄립리어 안녕하세요?
어쭈 감사합니다

성모성월인 5월부터 그림 같은 글씨와 너무나도 생소한 언어 실습을 위해 바탐방 교구청 내에 있는 몬돌 쏘코피업(건강센터, 보건소)에서 생활한 지 벌써 6개월로 접어들었다. 이 곳은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간호 수녀가 와서 약장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약을 주고 있으며, 상주 의사도 따로 없고, 간호사들은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간호대학을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환자에게 약을 주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은데 언어의 한계로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언어가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01 봉성체

실습을 나가면서 처음에는 청소하고 약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유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의료 소모품들과 약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몬돌 쓰코피업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약과 창고 정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의료 지식을 동원하여 정리를 하고나니 창고와 약장에 빈 공간이 많아졌다.

여기 사람들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유효기간이 3년은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굳게 믿고 있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릇된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석처럼 믿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나 역시 이와 같은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

며 성찰하게 되었다.

환자들의 상황이 큰 병원을 가기가 어렵고 가끔씩 외국에서 의사들이 올 때에 그나마 정식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몬돌 쓰코피업에서 감기, 고혈압, 간질, 관절로 인한 통증 등의 환자들은 무료로 약을 탈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감기 환자가 의외로 많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웬 감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자다가 아침저녁 기온차로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간질환자도 많은데 고열로 인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이다. 게다가 년 이모작을 하기에 노동의 과부하와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다.

혈액검사나 X-Ray, CT, Scan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환자들은 직원들이 큰 병원을 안내해 주고 있다. 큰 병원 이라고 해서 한 번 함께 가 보았는데 환의도 입지 않고, 식사도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며, 검사결과도 일주일 후에야 나오는 상황이니 응급한 환자는 4~5시간 걸리는 프놈펜 시로 가거나 그것도 안되면 그냥 돌보아 주고 있다.

위생시설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치아가 올곧은 사람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우슬린 수녀회 잔타나 수녀는 2년 전부터 각 학교에서 위생교육이라고 하며 양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 다니는데 도우미로 몇 번 따라가 보았다. 이를 닦는 것은 고사하고 먹물도 없는 형편의 마을이 많고, 우리가 위생교육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빗물을 받아 놓았는데 약간 맑은 흙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치교육을 하러 가서 치약, 칫솔, 소형 플라스틱 그릇을 학교 선생님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다.

외국에서 의료팀들이 봉사를 오면 함께 방문 진료를 나가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로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마을을 가게 되는데 그들은 방문 진료가 없으면 아파도 약을 구할 수가 없기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거나 스스로 병이 치유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미사 후에 봉성체를 다니다가 알게 된 간암 말기 환자는 통증이 심한데도 모르핀 주사는 물론이고 정제도 없어 일반 통증 약만 복용중이다. 통증으로 잠을



02 마을진료





03 간염 예방접종 점나눔 유치원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수면제를 주었더니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살 것 같다고 감사해하면서 입맛도 조금 돌아와서 오렌지와 죽을 조금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마침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가까워서 자주 방문하고 불편한 증상들을 조절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언어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삶을 들어주고, 약을 처방해 주며, 가끔씩 방문 진료해 주면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곳에 없는 것이 많아 순간순간 안타까움이 많을 따름이다. 외적,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느껴지는 것은 큰 은총이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고 있고, 특히 성 신부님이 흐뭇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가난과 환자들은 나에게 예수님의 연민이 내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느낌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며 내가 캄보디아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다. 성 신부님과 수도 공동체 수녀님,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는 안 사비엘 수녀, 김 마리비안네 수녀, 이 마리아 콜베 수녀(현재 총원에서 종신수련중이며 기도로 함께하고 있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Washington Report 길 모퉁이 집 통신

미국 워싱턴
이 나타나엘 수녀



- 8. 17 인천 출발 - 워싱턴 DC 도착
- 8. 18 성가정작은자매회 (Potomac, Maryland) 숙박, 은행계좌, 휴대폰 개통
- 8. 19 Rosary House 입주, 오블라티 로마 총원 JPIC 책임 Kenndy 신부 만남
- 8. 20 오블라티 미국관구 JPIC 책임 Antonio 신부 만남
- 8. 21 미건 라이스 수녀 길에서 만나 서로 소개
- 8. 24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미사 Basilica of National Shrine
- 8. 25 라이스 수녀와 Assisi House 기도 모임 참석, Dorothy Day Catholic Worker 공동체 방문
- 8. 26 오블라티(이하 OMI) JPIC 사무국 담당자 George 만남, 인턴십 일정과 사무실 자리 배정
- 8. 27~29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가 탐색, 자료 조사
- 8. 30 OMI JPIC 출근
- 9. 02 OMI JPIC 출근, Basilica 종탑 올라감(1년에 한 번 개방)
- 9. 03 마틴 루터 킹 공공 도서관 방문, OMI 홈페이지 인턴 소개
- 9. 04 가톨릭대학교(이하 CUA) 중앙도서관



- 9. 05 JPIC 학교 관련 자료 조사
- 9. 06 월피정, 프란치스칸 수도원 & 성 글라라 관상 수도원
- 9. 07 노동절, JPIC 홈페이지 업데이트
- 9. 08 OMI JPIC 출근, 미주교회의 JPHD 주관 Webinar (인터넷 세미나) 참여
- 9. 09 도미니칸 신학원 도서관 방문, CUA 아카데미 글쓰기 소개(표절 방지) 강의 청강
- 9. 10 OMI JPIC 출근, 골롬반 JPIC 모임 참석 : 남미 연료 추출 산업 폐해에 대한 Working Group
- 9. 11 Crossroads Culture Center 주최 교황 회칙 'Laudato Si' 강좌 참석
- 9. 12 셰익스피어극단 '한 여름 밤의 꿈' 무료 공연 관람
- 9. 14 WOLA(남미 인권단체) 주관 교황 방미 기념 간담회 참석
- 9. 15 CUA 학생회 주최 교황 회칙 특강 'Ecology in Life' 참석
- 9. 16 OMI 스탠포드와 미 상원 의원 회관 방문 : 미주교회의 주최 교황 방미 기념 미국의 이민자 현황과 정책에 대한 간담회 참석
- 9. 17 미주교회의 · CUA · 조지타운 공동주최 '교황과 핵무기 딜레마'
- 9. 18 CUA 종교학 · 신학 부학과장 면담, Baylor, CUA, Berkeley Center 공동주최 'Religious Freedom Project Summit' 참석
- 9. 20 링컨 메모리얼 방문
- 9. 21 OMI 출근, 블로그 포스팅용 글 작성, 라이스 수녀 공동체 방문, 공정 예산과 투자회사에 대한 세금 정책 개선에 관한 Webinar 참여
- 9. 22 'Nuns on the Bus' 13일 여정 종착지 모임 행사 참석, Faith in the Public Life 주최 교황 방미 환영회 안토니오 신부와 함께 참석, 미 상원 의원 회관



- 9. 23 교황 집전 시성식 미사 참석, Basilica of National Shrine, 성가정작은자매회 수녀 만남
- 9. 24 미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 Moral Action to Climate 모임 참석, 교황 미 의회 연설 잔디밭 시청
- 9. 25 OMI 스탠포드 미팅 참석, 교황 UN 연설 시청, 조지타운 버클리 센터 주최 '교황과 UN 사무총장의 정치적 영향력 관계' 특강 참석
- 9. 26 교황 방미 관련 자료 follow-up
- 9. 28 CUA, 도미니칸 신학원 과목 청강 관련 교학과 방문 상담
- 9. 29 성 안토니오 본당(집 맞은편) 식료품 무료배급 봉사
- 9. 30 OMI 출근, 미주교회의 JPHD 주최 '미국의 빈곤실태' Webinar 참여



Missionary Oblates of Mary Immaculate
JUSTICE, PEACE, & INTEGRITY OF CREATION

NEWS

Oblate JPIC office welcomes new intern Sister Nathanael Lee.

September 3rd, 2015



The Missionary Oblate JPIC office is proud to welcome Sister Nathanael Lee as JPIC intern beginning September 1. Sr. Lee is from South Korea and is a member of the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a congregation bas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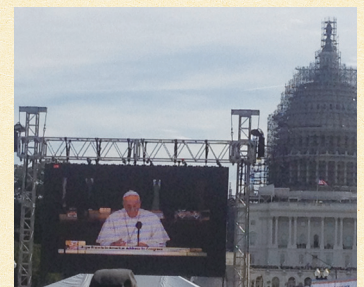
Sr Lee attended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e are excited to have Sr. Lee join our staff team. She will be volunteering her time to support our JPIC social justice ministry especially Eco-Spirituality, Climate Change, Anti-Nuclear Power and best practices in social justice organization.

Welcome Sr. Lee and best wishes in your studies.

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 World Affairs
GEORGETOWN UNIVERSITY

The Power of the Pope and the UN Secretary-General in World Politics

September 25, 2015





짧은 편지 : 떠나온 지, 한 달 반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경험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떠나오기 전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때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덤으로 받기도 하고 무응답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OMI-JPIC는 매주 이틀 나가 팀 미팅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행사 참여 & 조사 - 정리 - 보고하는 형식으로 실습하는 중이에요. '리틀 바티칸'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교회기관, 신학교, 수도원, 정의·평화 & 창조보전 사무국이 있으며 제가 사는 집과는 도보로 15분 이내에 다 닿는지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덜 합니다. 참여했던 특강이나 모임에서 제가 유일한 수도자이기에 어떤 분은 다가와서 그 전에 저를 본적이 있다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아무튼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in Korea는 제 수도명과 더불어 매번 소개하는 내용이 되다보니 '소비녀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더군요.

16명의 다양한 여학생, 직장인이 한 집에서 살며, 3명의 도미니칸 수녀들과 아침/묵주/저녁기도 함께 바치는 공동생활도 새롭습니다. 책임자인 모니카(위 사진 오른쪽) 수녀는 2002년 부천에서 4년간 선교사로 지낼 때 우리 수녀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인연이 반갑고 또한 짧은 한국어대화가 가능하니 즐겁습니다.

참석하는 세미나의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머리에서는 고품격 영어가 맴도는데 입 밖으로는 콩글리시만이 나올 뿐이에요. 10월 중에는 내년 초부터 청강할 학교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하느님도 잘 계십니다.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 (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중국 형주 상록촌

434030 中国 湖北省 荆州市 荆州区 八岭山镇
八岭山麻风康复中心 李香兰修女 收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필리핀 빠라나게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캄보디아 바탐방

National Road No4, Rourmcheck 1 village, Rattanak Commue,
Battambang City and Battambang Province, Cambodia

볼리비아(뿌에스토,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

이탈리아 엠폴리

Via del pozzo di Avane 16
50053 Empoli (Firenze), Italia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예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베트남 빈증

7, đườ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ường Phú Hòa,
thị xã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ương, Vietnam